

■ 일반 ■

프랑스령 알제리의 ‘새로운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무슬림 관계

음 동 건

I. 머리말

알제리 땅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의 공존은 오랜 것이었다. 두 집단의 만남은 멀리는 7세기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의 북아프리카 정복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실상 알제리 유대인 대부분의 뿌리는 14~15세기 이베리아의 그리스도교 왕국들에 의해 추방된 세파라드(Séfarades) 유대인에 있었다. 이들은 소수 상인 지도층 가문을 제외하면 무슬림 이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¹⁾ 하지만 오스만 제국, 이후 프랑스의 점령기를 함께 지내온 오랜 이웃 관계는 1962년 독립국가 알제리의 탄생과 함께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14만 유대인의 거의 90%가 독립을 전후하여 알제리를 떠나 프랑스로 이주한 것이다.

알제리 땅의 유대인들이 오랜 고향을 떠난 데에는 독립국가 알제리에서 일어날지 모를 무슬림 이웃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1830년 프랑스가 알제(Alger)를 점령하고, 40년 뒤 알제리 유대인들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한 이래, 알제리 땅에서 반유대주의를 주도한 이들은 무슬림이 아닌 유럽인 정착민이었고, 알제리 유대인이 가장 경계한 것도 유럽인에 의한 반유대주의적 공격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이 초래한 유대인-무슬림 간 차별과 불균등은 두 집단 사이에

1)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35-36.

긴장을 조성했고 무슬림에 의한 반유대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1954년 알제리 독립전쟁이 발발한 뒤에도 한동안 공존이 유지되었으나, 1956년부터 알제리 유대인 사이에서 무슬림 이웃에 의한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두려움이 표출되었고, 이는 북아프리카 이웃 무슬림 국가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수에즈 전쟁 이후 알제리에서 '새로운 반유대주의'가 현실화될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알제리 전쟁의 격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과 테러 행위들이 유대인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반유대주의'가 실재한다는 생각이 알제리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결국 알제리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프랑스를 향해 '탈출기'를 써내려가는 것으로 알제리에서 유대인-무슬림 공존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본고는 무슬림 이웃에 의한 '새로운 반유대주의'를 바라보는 알제리 유대인의 시각을 중심으로, 알제리 전쟁을 거치며 일어난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과 무슬림을 다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식민주의의 영향에 주목한다. 국내에는 아직 두 집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지만, 문중현의 연구는 19세기 말 프랑스 본토와 알제리 정착민 사회의 반유대주의를 소개하면서 당시 유럽인 반유대주의 세력이 “무슬림과 유대인의 대립이라는 신화”를 부추겼음을 보여준다.²⁾ 해외에서는 프랑스의 유대인-무슬림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프랑스령 알제리에서의 경험이 주목을 받으면서, 유대인-무슬림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며 재생산한 배경에 식민주의가 위치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³⁾ 알제리 전쟁을 “유대인과 무슬림의 형제애(brotherhood)가 사라지는 이야기”로 묘사하며 1956년 후반을 분기점으로 바라본 해머만

2) 문중현, 「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와 시민권 - 식민지 보수주의」, 『서양사론』, 134(2017), 23-24쪽.

3) Maud S. Mandel, *Muslims and Jews in France: History of a Conflic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Jews and Muslims from North Africa to Fra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in French colonial Algeria, 1870-1962*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Jessica Hammerman)은 식민주의의 유산인 프랑스의 민족적·법적 차별이 두 집단의 공존을 무산시켰음을 지적한다.⁴⁾

본고는 식민주의가 만들어낸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불균등이 두 집단의 공존을 무산시킨 주된 원인이라는 기존의 해석을 바탕으로, 식민지의 차별로부터 무슬림 이웃 사이에 반유대주의가 퍼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이들이 알제리를 떠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알제리 유대인이 프랑스 시민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무슬림에 대한 식민지의 차별을 대비함으로써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무슬림 이웃에 의한 ‘새로운 반유대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무대가 조성되는 모습을 확인한다. 이어서, 당대 알제리의 “유일한 유대인 언론기구”⁵⁾ 『앵포마시옹 쥐브 (*Information juive*)』 기사를 중심으로 1956년부터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알제리 유대인들의 우려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수에즈 전쟁 이후 알제리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짚으며,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II.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불균등과 공존의 위기

1830년 프랑스의 정복 당시 알제리에는 약 25,000명의 유대인이 있었고, 대다수는 ‘고립된 채 박해받는 가련한 존재’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장인과 소상공인이었다.⁶⁾ 프랑스로의 동화에 열성적인 중무국

4)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Algerian Jews during the War for Independence, 1954-1962”,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13), pp. 14-15, p. 109, 111.

5) “Seul organe d’expression juive” - “Information”, *Information Juive* 60, 1954.11, p. 3.

6) Benjamin Stora, “The Crémieux Decree”, Abdelwahab Meddeb & Benjamin Stora, eds., *A History of Jewish-Muslim Relations: From the Origins to the Present Da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nsistoire)⁷⁾ 소속 프랑스 유대인들과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던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 유대인을 향해 '진보'와 '재건'의 수사를 앞세우며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지만, "알제리 유대인은 스스로를 '재건'이 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⁸⁾ 종무국 설치를 통한 통제는 알제리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아랍적'인 종교의식과 교육, 비공인 시나고그, 혼인관습 등을 타파하려는 첫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⁹⁾

'알제리에서의 개인지위와 귀화(État des personnes et naturalisation en Algérie)에 관한 1865년 7월 14일의 원로원 결의(Sénatus-consulte)'로 알제리 유대인을 비롯한 식민지 원주민에게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1870년까지 유대인 33,000명 중 자발적으로 프랑스 시민으로 귀화한 이는 142명에 그쳤다.¹⁰⁾ 유대인 또는 무슬림 원주민이 프랑스 시민이 되고자 할 경우 그들의 개인지위와 고유의 종교법·관습법 적용을 포기하고 프랑스법에 따라야했지만, 자신들의 관습·종교·문화·재정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에 반감을 지니던 원주민들은 기존의 생활방식을 선택 포기하지 않았다.

프랑스 동화세력은 알제리 유대인 집단 전체를 프랑스 시민으로 귀화시키는 방안을 고안했다. 알제리 종무국 회원들은 파리 중앙종무국 및 식민당국에 알제리 유대인의 집단 시민권 부여를 요청했고, 파리 대표 의원이자 세계유대인동맹(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 의장 아돌프 크레미외(Adolphe Crémieux)의 책임 아래 논의되던 법안은 1870년 9월 4일, 제2제정의 몰락 직후 세워진 임시정부에서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뜻밖의 추진력을 얻었다. 10월 24일 비준된 법령 136호, 소위 '

2013), p. 286; Joshua Schreier, *Arabs of the Jewish faith : the civilizing mission in colonial Algeria*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p. 15.

7) 1808년 나폴레옹이 프랑스 유대인의 계몽과 시민사회로의 통합을 목적으로 신설했고, 프랑스 법무부와 종교부가 감독하는 파리 중앙종무국이 1844년부터 각 종무국의 감독권·인사권을 지녔다. 1845년 11월 9일 법령으로 알제리 주요도시들에도 종무국이 설치되었지만 전쟁부의 감독을 받았다.

8)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 114.

9) Joshua Schreier, *Arabs of the Jewish faith*, pp. 68-77.

10) *Ibid.*, p. 173.

크레미외 법령(Décret Crémieux)'을 통해 알제리 세 도(département)의 유대인 35,000명은 자동적으로 프랑스 시민이 되었다.¹¹⁾

반면 무슬림은 원주민 지위(indigénat)에 묶여 있었고, 이미 재산법과 형법에서 프랑스법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무슬림의 규범과 관습이 시민권과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그들이 '동화될 수 없는 존재'라며 시민이 되는 길을 사실상 가로막았다. 무슬림은 원주민 지위로 인해 여러 법적·사회적 차별에 직면했고, 대표성이 제한되어 알제리의 각종 자치·자문기구에서 결코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었으며 선거권은 소수에게 한정되었다. 그들을 “원주민 지위의 덫에 가뒀 놓고, 동시에 그들이 시민사회(cité)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허약한 정착민 공화국의 주요 관심사이자 필요조건이었다.”¹²⁾

한편 유럽인 '정착민 공화국'에서는 반유대주의가 큰 인기를 끌었다. 1865년 7월 14일 원로원 결의¹³⁾ 및 1889년 6월 26일 국적법¹⁴⁾ 등을 통하여 비프랑스계 유럽인 정착민 역시 프랑스 시민으로 흡수되었지만, 인종·출신에 따른 계층사회에서 이들이 느끼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반유대주의 정치인들에게 좋은 표발을 제공했다. 선거·구직 등에서 유대인과 경쟁해야 했던 유럽인 정착민에게 반유대주의는 “유대인과의 정치적 경쟁을 거부하는 운동이자 프랑스를 향한 동화주의의

11)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in French colonial Algeria*, pp. 8-10; 문종현, 「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와 시민권」, 22쪽. 한편 사하라 읍자브(Mزاب) 지역 유대인은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들은 1961년 6월에야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다.

12)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34-36;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p. 105-106, 120-125.

13) 프랑스 시민권을 얻으려면 개인지위·관습법을 포기해야 했던 무슬림이나 유대인과 달리 유럽인 정착민은 알제리 3년 이상 거주를 입증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다.

14) 1889년 국적법으로 아버지가 프랑스 영토에서 출생한 외국인이고 본인 역시 프랑스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는 태생적으로 프랑스 시민이 되었다. 2년 뒤에는 어머니가 프랑스 영토에서 출생한 외국인이고 본인 역시 프랑스 영토 출생인 경우에도 이 혜택이 적용되었다. 또한 외국 출생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프랑스 영토 출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성년(21세)이 되기 전까지 프랑스 국적 획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했다. 김진영, 「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Homo Migrants』, 12(2015), 54쪽.

표현이었다.”¹⁵⁾ 크레미외 법령 폐지 청원 및 유대인을 선거인 명부에서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19세기 말에는 반유대주의 폭동과 함께 반유대주의 진영이 알제리에서의 각종 선거를 휩쓸었다.¹⁶⁾

반유대주의의 폭풍 속에서 알제리 유대인은 오히려 프랑스 시민의 정체성을 내재화하고 있었다. 알제리 유대인 13,000명이 참전한 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첫 번째 시험대이자 군 복무를 통해 프랑스적인 것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시간이었다.¹⁷⁾ 전후 알제리 유대인은 스스로를 “프랑스에 걸맞은 자녀”로 일컬으며 적극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고, 정착민의 반유대주의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¹⁸⁾ 1930년대까지도 유대인 선거권 박탈 시도가 이어졌지만, 1939년 1월,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유대인이 프랑스 시민임을 재확인해주었다.¹⁹⁾

반면 무슬림에게 시민권 획득은 요원한 일이었다. 1차 대전 당시 무슬림 역시 많은 희생을 치렀으나,²⁰⁾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개혁’은 반쪽에 그쳤다. 1919년 2월 4일 조나르(Charles Jonnart) 총독의 주도로 무슬림 선거권이 확장되었지만 대표성은 제한되었고, 귀화를 원하면서 개인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半)귀화’를 허용했으나 시민과 동등한 선거권을 지니지는 못했다. 1936년에는 인민전선 총리 레옹 블룸(Léon Blum)과 전 알제리 총독이자 국무부 장관 모리스 비올레트(Maurice Viollette)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진화’된 무슬림 25,000여 명에게 그들의 개인지위 포기를 강제하지 않고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착민과 알제리 시장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²¹⁾

차별과 불균등에 대한 불만은 두 집단의 공존 위기로 나타났다. 특히

15) 문종현, 「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와 시민권」, 26쪽.

16)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93-99.

17)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pp. 26-27.

18)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112-130.

19) *Ibid.*, p. 246.

20) 173,000여명의 알제리인이 프랑스군으로 복무했고, 그 중 86,519명은 자원병이었다. 또한 78,056명의 알제리인 노동자가 있었다.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pp. 337-338;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 136.

21)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148-149, 219-220.

1929~1934년 59건의 유대인-무슬림 충돌 사건이 발생하며 갈등이 고조되던 콩스탕틴에서 긴장이 폭발했다.²²⁾ 1934년 8월 5일 무슬림이 유대인 거리를 공격하며 폭동이 일어났고, 시 당국의 방관 아래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다. 콩스탕틴 도지사 지시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두 집단 간 권리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²³⁾ 유대인·무슬림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콩스탕틴 사태는 진정되었지만, 피식민자간의 차별·분리를 통해 식민자의 패권과 우위를 유지하고 통치를 지속하는 정책은 유대인-무슬림 관계에 언제나 긴장을 조성할 수 있었다.²⁴⁾

비시 정부의 지배 아래 또 한 번 공존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비시 정부는 1940년 10월 7일 크레미의 법령을 폐지함으로써 알제리 유대인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직장을 잃었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크레미의 법령 폐지는 정착민의 반유대주의 여론에 영합하면서 한편으로 무슬림의 상대적 박탈감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프랑스는 종종 식민주의의 공모자로 비난받던 알제리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던져줌으로써 알제리의 반식민주의·민족주의 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고 식민제국을 유지하기를 희망했다.²⁵⁾ 무슬림에 의한 반유대주의 행위가 늘어났고, 작은 폭력과 충돌이 빈번했다. 유대인은 무슬림이 다음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지만 호응은 크지 않았다.²⁶⁾

알제리 민족운동 지도자 메살리 하지(Messali Hadj)는 크레미의 법령 폐지에 대해 “유대인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무슬림의 권리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평했다.²⁷⁾ 알제리 유대인의 프랑스 시민권은 1942년 11월 8일 연합군의 알제 상륙 후에도 복원이 지연되다가, 1943년 3월 14

22) Aomar Boum, “Partners against Anti-Semitism: Muslims and Jews respond to Nazism in French North African colonies, 1936-1940”,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19(2014), p. 557.

23)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173-187, p. 195.

24) Daniel J. Schroeter, “Between Metropole and French North Africa: Vichy’s Anti-Semitic Legislation and Colonialism’s Racial Hierarchies”, Aomar Boum & Sarah Abrevaya Stein, eds., *The Holocaust and North Afric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9), pp. 48-49.

25) *Ibid.*, p. 28.

26) Sophie B. Roberts,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pp. 265-266, p. 288.

27)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p. 145.

일 크레미외 법령 복원 및 재차 폐지의 소동을 거친 후, 10월 20일에 회복되었다. 비슷한 시기 본토 수복을 앞두고 무슬림의 도움과 지지가 절실했던 프랑스는 1944년 3월 7일 원주민 지위를 폐지하는 등 ‘개혁’을 재추진했지만 여전히 무슬림의 완전한 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1946년 5월 모든 알제리인이 프랑스 시민으로 선포되었고, 10월 제 4공화국 헌법이 이를 재확인했지만, 선거권은 제한되어 유대인을 포함한 532,000명의 유럽인 유권자와 130만 무슬림 유권자가 별도의 선거인단으로 구분되었고, 1947년 설립된 알제리 의회에서는 유럽인과 무슬림 의석이 동수로 정해졌다.²⁸⁾ 1945년 5월 8일 세티프(Setif)와 겔마(Guelma) 등에서 이루어진 학살은 프랑스가 무슬림 원주민에게 알제리를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여러 차례의 선거방해에서 드러나듯 “식민당국은 알제리 인구 대부분과 그들의 정치적 열망을 소수의 지배라는 개혁 불가능한 식민지 질서 안에 묶어두려 했다.”²⁹⁾ 식민지배에 대한 불만이 정점에 달하며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III. 1956년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알제리 유대인의 우려

1954년 10월 31일, 민족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FLN)이 프랑스의 지배에 대한 무장독립투쟁을 선포하며 ‘알제리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전쟁 초기 알제리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의견도 표출하지 않았다.³⁰⁾ 그들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은 알제리유대인사회조사위원회(Comité juif algérien d'études sociales, CJAES)가 1948년 10월 창간한 월간지 『앵포마시옹 쥐브(Information juive, 이하 앵포마시옹)』이다. 자크 라자루스(Jacques Lazarus)³¹⁾

28)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p. 106, pp. 183-184.

29) *Ibid.*, p. 188.

30)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p. 60-61.

31) 앵포마시옹의 편집장이자 CJAES 사무총장 라자루스는 1916년 스위스에서 태어나 알자스로 이주한 유대인으로, 1930년대 프랑스 군인이었으나 1941년

를 비롯한 발행인들은 유대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알제리와 세계 유대인 공동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하지만 1956년 전까지 앵포마시옹에서는 독립투쟁 소식이나 그에 대한 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프랑스와 무슬림 이웃 사이에서의 ‘모호한 중립’의 태도만 드러날 뿐이다. 오랑 출신 레이몽 베니슈(Raymond Bénichou)가 1955년 7월호에 크레미외 사망 75주기를 기념하며 실은 글이 대표적이다. 그는 프랑스인이 되려는 유대인의 열의를 보증했다며 크레미외를 치켜세웠고, 프랑스를 “제2의 조국(patrie d’adoption)”으로 묘사하며 프랑스의 입양아가 된 알제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또한 1943년 무슬림 지도자 부멘젤(Ahmed Boumendjel)의 크레미외 법령 회복에 대한 지지를 “무슬림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정의 증거”로 묘사하며 감사를 표했다.³²⁾ 전쟁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프랑스 시민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무슬림에 호의를 표한 것은 당시 알제리 유대인의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1956년 앵포마시옹은 침묵을 깨고, 유대인이 표적이 된 사건들을 조심스럽게 알렸다. 다만 1956년 2월 8일 한 유대인 청년이 ‘테러리스트’에게 암살된 사실은 일반 테러사건으로 취급했을 뿐 유대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³³⁾ 6월 2일 오를레앙빌(Orléansville, 현 지명 Chlef) 시나고그 방화사건 보도 역시 사실을 간략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³⁴⁾ 기사와 나란히 CJAES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우리는 모든 정치셈법과 당파성을 떠나,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민족 집단의 우애(fraternité)**라는 이상을 고수함을 되새기고자 한다.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자리 잡았고, 프랑스에 의해 약 한 세기 전 해방된(émancipé)

해직 후 레지스탕스에 참여했다. 드랑시(Drancy) 수용소에 수감되어 1942년 아우슈비츠로 이송 중 탈출, 생존한 뒤 1948년 세계유대인총회(WJC)의 북아프리카 담당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프랑스 공화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면서도 유대인의 존엄성과 프랑스 시민권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2) Raymond Bénichou, “Hommage à Adolphe Crémieux”, *Information Juive* 68, 1955.7, p. 1, 3.

33) “Raphaël Cherqui”, *Information Juive* 74, 1956.2, p. 4.

34) “L’incendie d’une synagogue”, *Information Juive* 78, 1956.6, p. 3.

알제리 유대인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알제리의 참담한 현재 상황에 비통함을 느낀다. 개인의 책임과 각자의 신념에 따른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개입을 삼가면서, 우리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도발이 있더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오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평화의 회복을 통해, 화합과 우애의 기류 속에서 자유를 꽃피우는 삶이 모두에게 새로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³⁵⁾

성명을 통해 알제리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프랑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유대인 역시 알제리 땅의 정통성 있는 주민임을 내세우며 우애를 강조했다. 이들의 최대 관심은 알제리 유대인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어떠한 도발에도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발언 속에는 유대인이 표적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있으며, 이 때문에 앙포마시옹은 추신으로 외부 유대인 조직과 지도자들에게, 현 상황에서 그들의 목적과 의도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북아프리카 유대인의 미래에 관한 언급을 자제해줄기를 요청했다.

아직까지 알제리 유대인들의 이목은 기존의 유럽인 반유대주의 세력에 대한 염려에 쏠려있는 듯 보였다. 1955년 라자루스가 접수한 신고는 대부분 유대인에 대한 유럽인과 프랑스군의 불공정 행위 및 괴롭힘에 관한 것이었다. 정착민들의 시위에서는 여전히 “유대인 타도”의 구호가 터져 나왔고, 1956년 2월 알제에서 푸자드(Pierre Pujade)는 삼대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은 유대인의 공직취임금지를 요구했다. 푸자드주의자들은 유대인이 은밀히 FLN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음모를 퍼트렸고, 1956년 5월 콩스탕틴 중무국은 불시 단속을 받았다.³⁶⁾ 앙포마시옹에는 푸자드주의의 반유대주의 성격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³⁷⁾

그러나 1956년의 여러 기사들 속에는 유럽인으로부터의 반유대주의에

35) “Deux Déclarations du Comité Juif Algérien d’Etudes Sociales et de la Fédération des Communautés Israélites d’Algérie”, *Information Juive* 78, 1956.6, p. 3. 굵은 글씨는 본고의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36)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p. 90-101.

37) “Le Mouvement Pujade”, *Information Juive* 74, 1956.2, p. 1.

대한 두려움 외에 무슬림 이웃에 의한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우려가 표출되었다. 프랑스의 보호령이던 마그레브 이웃국가들의 독립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표적이다. 모로코와 튀니지는 민족주의 세력의 오랜 투쟁과 협상 끝에 1956년 3월 2일과 3월 20일 각각 독립을 이룩했다. 독립 직후 두 나라 유대인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고, 내각에 유대인 장관을 임명하는 등 유대인들을 새 국가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³⁸⁾ 하지만 앵포마시옹 3월호는 튀니지를 떠나는 유대인이 늘고 있음을 언급했고,³⁹⁾ 아랍국가들이 “나치의 수법(les tactiques nazies)”을 따라 국제음모를 꾸미며 반유대주의를 부추긴다는 내용의 미국유대인총회(American Jewish Congress) 의장의 1월 발표를 소개했다.⁴⁰⁾ 시온주의자의 두 달 전 글을 이 시점에 소개한 이면에는 독립 후 사실상 아랍국가가 될 이웃에 대한 노파심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는 5월호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자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충성한다며 비판한 튀니지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편집장 라자루스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것이라는 튀니지 정부의 약속도 유대인의 두려움과 의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자국 유대인의 충성을 문제 삼을수록 그들에게는 이민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⁴¹⁾ 10월호는 모로코에서 이스라엘로의 이주가 금지되어 모로코를 떠나려던 유대인들이 억류되는 사건이 일어난 뒤, 술탄과 이스티크랄(Istiqlal)당 인사가 자국 유대인이 무슬림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국민임을 밝히며 화합을 강조하던 발언들을 크게 부각시켜 보도했다.⁴²⁾ 이러한 반응 속에는 탈식민 후 독립 아랍국가에서 나타날지 모를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차별에 대한 알제리

38)Michael M. Laskier, “The Emigration of the Jews from the Arab World”, Abdelwahab Meddeb & Benjamin Stora, eds., *A History of Jewish-Muslim Relations*, p. 420.

39)“Tour d’Horizon”, *Information Juive* 75, 1956.3, p. 2.

40)Israël Goldstein, “Les mesures discriminatoires de la Ligue arabe à l’encontre des Juifs” *Information Juive* 75, 1956.3, pp. 5-6.

41)Jacques Lazarus, “Leur corps ici Leur coeur ailleurs”, *Information Juive* 77, 1956.5, pp. 1-2.

42)*Information Juive* 81, 1956.10, p. 2.

유대인의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었다.

11월호에는 알제리 유대인이 지닌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글이 실렸다. 11월 2일자 『르몽드(*Le Monde*)』가 「알제리 무슬림 대중은 유대인(*Israélites*)과 이스라엘인(*Israéliens*)을 앞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⁴³⁾라는 제목으로 수에즈 전쟁(2차 중동전쟁) 이후 알제리 무슬림의 반유대주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항의였다. 앙포마시옹은 알제리의 유대인과 무슬림은 “그들의 기존 관계 유지를 바랄 뿐”이고, 르몽드 특파원이 수에즈 전쟁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이용해,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랑스인’인 유대인과 ‘알제리인’인 무슬림 사이에,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유감”이라며, 이 기사가 불려올 과란을 염려했다.⁴⁴⁾

같은 호에서 앙포마시옹은 알제리 독립투쟁에 대해 이전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해 8월 20일~9월 5일 카빌리 슈맘 계곡 인근에서 열린 FLN 지도자들의 슈맘 회의(*Congrès de la Soummam*)는 조직을 정비하고 독립투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한편,⁴⁵⁾ 알제리 유대인들에게 민족주의 투쟁 동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FLN은 알제리 유대인을 “우리 조국의 아들”로 일컬으며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자유롭고 진정으로 우애로운 알제리 건설에 기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⁴⁶⁾

이에 대해 알제리유대인사회조사위원회(CJAES)는 11월호의 답변을 통해, “2천 년 넘게 이 나라에 자리잡아온 유대인들이” “상당한 신세를 지고 있는 프랑스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유대인은 무슬림 및 프랑스인(“그리스도교인”) “둘 모두와 긴밀한 우정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며 FLN의

43) “La masse musulmane algérienne saura-t-elle toujours distinguer entre Israélites et Israéliens?”

44) “Un article déplacé”, *Information Juive* 82, 1956.11, p. 3.

45) 전국을 6개 군사관할지역 윌라야(*wilaya*, 오늘날 알제리에서 ‘주’ 단위의 명칭)로 나누고, 민족해방군(ALN)을 정규군화 했다. 또한 정치의 군사에 대한 우위와 함께 지휘권이 해외가 아닌 국내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알제리혁명전국평의회(CNRA)와 조정집행위원회(CCE)를 창설하고 지휘권을 6인의 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노서경, 『알제리전쟁 1954-1962』 (과주: 문학동네, 2017), 353-359쪽.

46)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p. 108-109.

요청을 에둘러 거절했다. 이어 알제리 유대인-무슬림 사이의 오랜 관계, “특히 비시 시절에 빛을 발한 따뜻한 우정”을 언급하며 “중동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이곳에서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 감정에 변화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덧붙였다.⁴⁷⁾

FLN의 공식적인 동참요구에 대해 프랑스에 대한 감사로 답함으로써 사실상 친프랑스적 입장에 선 알제리 유대인 지도자들은 특별히 중동의 위기가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며 ‘새로운 반유대주의’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까지는 무슬림 사이에서 알제리 유대인이 무슬림의 권리신장을 돕지 않는다면 비판하거나 식민주의의 동조자로 비난하는 기류는 있었지만 식민주의자 자체와 동일시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다. 알제리 유대인들에게 1956년 11월호의 두 기사에서 내비친 이웃 무슬림에 의한 공격의 우려가 현실화되며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르는 데에는 ‘중동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IV.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실현과 공존의 종식

알제리 유대인들의 두려움 가운데 자리 잡을 ‘새로운 반유대주의’라는 폭풍의 중심에는 나세르(Gamal Abdel Nasser)의 이집트가 있었다. 나세르의 집권 이후 앵포마시옹이 묘사하는 이집트는 “유대인의 영속적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박해의 땅이었다.⁴⁸⁾ 앵포마시옹이 나세르에 대해 더욱 분명한 감정을 내비치는 계기는 1956년의 ‘수에즈 위기(Suez Crisis)’였다. 이집트의 수에즈 국유화 후 첫 발행호인 8-9월 통합호는 당시 나세르의 선언, 이집트 정부가 나치가 그러했듯 자국 유대인에게 특별 신분증 소지를 강제할 것이라는 소식,⁴⁹⁾ 동독 정부가 이집트의 외교적

47) “Une déclaration du Comité juif algérien d’études sociales”, *Information Juive* 82, 1956.11, p. 1. 굵은 글씨는 본고의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48) Nehemiah Robinson, “La récente persécution anti juive en Egypte”, *Information Juive* 61, 1954.12, p. 1, 4.

49) 이 소식은 오보로 밝혀졌고, 앵포마시옹은 다음호에서 이를 정정 보도했다.

지지를 얻기 위해 나치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불을 거절했다는 기사를 한 면에 나란히 실으며, 나세르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암시를 주었다.⁵⁰⁾

수에즈 전쟁 발발 직후 발행한 11월호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을 ‘해방’으로 묘사하고 인도적인 면을 부각시키려 한 반면, 이집트는 그동안 가자 지구를 ‘점령지’로 대해왔다고 폄하했다.⁵¹⁾ 또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프랑스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간접적인 지지를 표했다.⁵²⁾ 12월호는 나세르에 대한 반감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뉴욕헤럴드트리뷴(New-York Herald Tribune)』 기사를 인용하여 이집트 유대인들의 감금·추방 및 이집트 정부의 자산 몰수 음모를 보도했고,⁵³⁾ 영국 정부의 발표라며 나치 인사들이 나세르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⁵⁴⁾ 세계유대인총회(WJC) 유대문제연구소의 「이집트의 유대인」 특집 기사는 “나세르가 절대권력을 쥐자 유대인의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며, 그가 국내문제를 감추고 이스라엘과의 투쟁에서 아랍 세계의 선봉장이 되고자 자국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⁵⁵⁾

아랍 세계에서 수에즈 전쟁은 이스라엘·프랑스·영국이라는 제국주의·식민주의 세력이 한편이 되어 이집트를 침공한 사건이었고, 나세르는 투쟁의 선봉에 선 인물이었다.⁵⁶⁾ FLN은 프랑스를 상대로 한 독립투쟁에서 이집트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프랑스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차단하려 했다. 한편 샬(Maurice Challe), 마쉴(Jacques Massu) 등 프랑스의 수에즈 장교단은 알제리 전쟁에서 FLN 진압을 주도하는

“Mise au point”, *Information Juive* 81, 1956.10, p. 4.

50) *Information Juive* 80, 1956.8-9, p. 1.

51) *Information Juive* 82, 1956.11, p. 1.

52) “Réflexions”, *Information Juive* 82, 1956.11, p. 1.

53) “En Egypte, un juif sur dix a été soit interné, soit expulsé”, *Information Juive* 83, 1956.12, p. 1.

54) “Le 《brain-trust》 Nazi de Nasser”, *Information Juive* 83, 1956.12, p. 1.

55) “Les juifs d’Egypte (d’après une note diffusée par l’Institut des Affaires Juives du Congrès Juif Mondial)”, *Information Juive* 83, 1956.12, pp. 3-4.

56) 유진 로건, 이은정 역, 『아랍: 오스만 제국에서 아랍 혁명까지』 (서울: 까치, 2016), 428-433쪽.

인물들이었다.⁵⁷⁾ 이스라엘·프랑스와 이집트·FLN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지는 때, 앵포마시옹이 보인 친이스라엘-반(反)나세르적 입장과 숨막의 요청에 대한 답변 속 친프랑스적 태도가 교차하며, 알제리 유대인 이식민주의 세력과 동일시되어 FLN의 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수에즈 전쟁은 FLN 내 역학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나세르는 카이로를 기반으로 한 FLN ‘해외파’를 후원하며 프랑스군의 유대인 징집을 방해하거나 북아프리카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를 막으라는 등의 지령을 내렸다. 수에즈 전쟁 이후, 나세르의 지원에 힘입어 이들 ‘해외파’가 아랍 민족주의를 투쟁 동력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국내파’ 거두 아반 람단(Abbane Ramdane)의 세속주의에 맞서 이슬람을 FLN의 대의로 포섭했고, 지도자들은 쿠란에 맹세하며 알라에게 군사적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 FLN 선전에서 쿠란 인용이 늘어났다. 올라마⁵⁸⁾ 세력이 합류하며 FLN에서 이슬람 정체성을 보다 전면에 내세우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국내파’가 주도한 숨막 회의의 원칙들은 1957년 8월 폐기되었고, 유대인·유럽인을 끌어들이 아랍·이슬람 중심의 국가구상을 훼손한다며 ‘해외파’의 비난을 받던 아반 람단은 1957년 12월 27일 모로코에서 FLN 조직원에 의해 살해당했다.⁵⁹⁾ 이는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독립국가 알제리의 미래를 상징했다.

수에즈 전쟁 이후 알제리에서 유대인에 대한 폭력이 확산되었다. 알제리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무슬림 이웃의 공격이 늘어났음을 느꼈고, 두려움의 주요 대상은 유럽인에서 무슬림으로 바뀌었다. FLN의 군 조직 정비 이후 투쟁은 더 격렬해졌고, 1957년 초부터 FLN이 개별적 암살에서 시한폭탄을 이용한 테러로 공격 방식을 전환하며 유대인 희생자도 늘어났다. 실제로 FLN이 특별히 반유대주의 전략을 짠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에 대한 일련의 잔인한 공격들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반유대주의**

57) 노서경, 『알제리전쟁』, 428쪽.

58) 이슬람 사회의 신학자·법학자의 집합체로 이슬람의 교리와 제도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지도한다.

59) *Ibid.*, pp. 400-405;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p. 129-130, 189-193.

폭력의 물결이 다가온다는 인상을 주었다.”⁶⁰⁾

1957년부터 CJAES에는 무슬림의 유대인 공격 사례가 수없이 보고되었다. 라자루스가 접수한 신고에 따르면 폭력은 유대인 시설 폭탄테러, 시나고그 침범 및 훼손, 유대인 지도자 암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1957년 6월 8일 밤, 알제 유대인 젊은이들의 명소로 알려진 유흥업소에 폭탄테러가 일어나 9명이 사망, 80명이 부상을 입었다. 1957년 여름, 오랑과 본 등의 유대인들이 라자루스에게 보낸 편지들에는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와 공격에 대한 제보가 가득했다. 무슬림이 유대인을 프랑스군의 공모자로 비난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유대인들은 식민당국이 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라자루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내 1958년 3월, 라자루스는 한 회합에서 현재 유대인이 알제리 민족주의자의 손에 고통 받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적 입장을 취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했다.⁶¹⁾

알제리 유대인은 프랑스 편임을 더 이상 모호함 속에 숨기지 않았다. 1958년 5월 알제에서 성대하게 치른 이스라엘 건국 10주년 기념행사에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가 울려 퍼졌고 이스라엘 청백기와 프랑스 삼색기가 함께 걸렸다.⁶²⁾ 한 달 전, 행사를 준비하던 주최 측은 알제리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어느 편인지 확실히 정하라는 협박편지를 받았지만,⁶³⁾ 시온주의자뿐 아니라 알제리 유대인 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에서 프랑스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무슬림 이웃의 마음 속 ‘유대인=이스라엘=프랑스=식민주의자’ 등식에 확신을 불어넣었다.

같은 해 5월 13일 알제 장군들의 ‘혁명’으로 드콜이 권좌에 복귀한 뒤, 알제리에서는 잠시 유대인과 무슬림의 공존의 희망이 고개를 들었지만,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1960년 말부터 유대인에 대한 무슬림 이웃의 공격이 본격화되었다. FLN이 조직한 시위에서 프랑스군의 발포로 무슬림

60) *Ibid.*, pp. 189-191, p. 195. 굵은 글씨는 본고의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61) *Ibid.*, pp. 196-209.

62) Keren Rouche, “Projecting Algerian Judaism, Formulating a Political Identity: Zionism in Algeria during the War of Independence (1954-1962)”,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12(2007), p. 193.

63) Michael M. Laskier, “The Emigration of the Jews from the Arab World”, p. 425.

112명이 사망한 직후인 1960년 12월 12일, 신원미상의 한 무리가 알제 대(大)시나고그에 침입해 시설을 훼손하고 알제리 국기를 남겨둔 채 떠났다. 벽에는 FLN 이름과 함께 “알제리 공화국 만세”, “유대인에게 죽음을”이라는 낙서를 새겼다. 몇몇 유대인 상점도 함께 약탈당했다.⁶⁴⁾ FLN은 관련성을 부인하며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지만, 프랑스를 돕는 이들은 결국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⁶⁵⁾

FLN 기관지 『엘 무자히드(*El Moudjajid*)』는 1960년 12월 21일자 기사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민족해방투쟁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그들을 식민주의 범죄의 공모자로 비난했다. 알제 대(大)시나고그 테러 이후 15개월간 발생한 130건 이상의 유대인 및 유대인 시설 공격은 대부분 FLN과 그 지지자에 의한 것이었다. 1961년 6월 22일, 무슬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FLN의 지지자였다는 기록도 있다.) ‘셰이크(Sheikh) 레이몽’이라 불리던 알제리 유대인 가수 레이리스(Raymond Leyris)조차 암살당하는 지경에 이르자 독립국가 알제리에 유대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전망이 높아졌다.⁶⁶⁾

알제리 유대인의 두려움을 가중시킨 것은 프랑스 시민권 상실의 기정사실화였다. 1961년 1월 FLN은 『엘 무자히드』를 통해 유대인과 유럽인을 ‘알제리의 소수집단(*Algériens minoritaires*)’으로 지칭했고, 튀니스에서 열린 알제리공화국임시정부(*Gouvernement Provisoire de la République Algérienne, GPRA*) 회의에서 향후 독립국가 알제리가 크레미외 법령을 폐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알제리 유대인은 프랑스로 떠날 자유를 지닌 유럽인과 달리,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한 채 무슬림이 주인인 국가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유대인이 보기에 그 주인은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었다.⁶⁷⁾

1961년 9월 11일 유대력 새해 첫날 아침의 유대인 살해에서 비롯된 오랑의 대규모 유대인-무슬림 충돌에서 유대인과 무슬림 군중이 각각

64)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p. 209-210.

65) Maud S. Mandel, *Muslims and Jews in France*, p. 51.

66)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pp. 203-204.

67) Jessica Hammerman, “The Heart of the Diaspora”, p. 183, pp. 217-218.

“프랑스령 알제리(Algérie Française)”와 “무슬림의 알제리(Algérie musulmane)”를 외친 것은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음을 상징했다.⁶⁸⁾ 유럽인 정착민들이 알제리 독립에 반대하며 그 해 2월 결성한 비밀군사조직(Organisation Armée Secrète, OAS)에 대한 유대인의 지지가 늘어났다.⁶⁹⁾ 프랑스로 이주하는 유대인 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 독립이 현실로 다가오자 유대인은 알제리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다. 1962년 4월 26일자 『예루살렘 포스트(Jerusalem Post)』에 실린 한 콩스탕틴 유대인의 푸념은 이웃 관계의 종식을 예고했다. “오래 전부터 무슬림은 우리의 친구였지만 이제 알제리에서 유대인이 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알제리가 완전히 독립하는 아랍인의 잔칫날 유대인의 재산이 후식으로 메뉴에 오르겠지요!”⁷⁰⁾

V. 맺음말

알제리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의 오랜 공존이 막을 내린 데에는 기존의 유럽인 중심 반유대주의와 달리 무슬림 이웃이 가해자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이 실현될 조건들은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불균등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 알제리 유대인은 1870년 크레미외 법령을 통해 일괄적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반면, 무슬림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었고 번번이 좌절되었다. 식민지의 인종적 위계질서에 따라 형성된 차별에 대한 무슬림의 불만은 종종 유대인-무슬림 공존의 위기를 불러왔다. 알제리 전쟁 초기에 유대인은 프랑스에 대한 충성과 무슬림 이웃과의 연대 사이 ‘모호한 중립’을 표방하며 침묵을 지켰지만,

68) Joshua Schreier, “A Jewish Riot against Muslims: The Polemics of History in Late Colonial Algeri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8-3(2016), pp. 746-748.

69) Ethan B. Katz, *The Burdens of Brotherhood*, p. 207.

70) Sung Choi, “Complex compatriots: Jews in post-Vichy French Algeria”,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17(2012), pp. 863-864.

1956년 이후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며, 모로코·튀니지·이집트 등 주변 국가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려를 드러냈다. 그들의 두려움은 수에즈 전쟁을 지나며 알제리 무슬림 사이에서 유대인을 식민주의자와 동일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FLN 내 역학 구도가 변화하면서 현실화되었고 결국 알제리 유대인과 무슬림 공존의 종식으로 이어졌다.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공존 위기는 1956년의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닌, 식민지의 오랜 차별적 환경 속에서 축적된 갈등의 산물이었다. 수에즈 전쟁을 비롯한 중동의 위기는 알제리 유대인이 비난과 공격의 표적이 되는 데 불을 붙였을 뿐, ‘새로운 반유대주의’라는 초의 심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오늘날 프랑스에서 재현되고 있다. 무슬림 이민자 출신에 의한 반유대주의 행위가 2차 인티파다가 일어난 2000년 급증한 이래 팔레스타인에서의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⁷¹⁾ 여기에는 프랑스에서의 유대인-무슬림 간 정치적·사회적 불균등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전 이후 유대인이 “‘특별한’ 이방인”으로 대우받은 반면, 무슬림은 정치적 영향력 뿐 아니라 고용·임금·주거환경 등에서 차별받으며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⁷²⁾ 무슬림들의 불만은 프랑스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났고,⁷³⁾ 중동의 갈등에 자극을 받으며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유대인과 무슬림 상당수의 뿌리이기도 한 프랑스령 알제리에서의 과거가 오늘날의 유사한 현상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데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71) Günther Jikeli, “Explaining the Discrepancy of Antisemitic Acts and Attitudes in 21st Century France”, *Contemporary Jewry*, 37-2(2017), pp. 260-263.

72)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161-171쪽, 211-232쪽.

73) Nonna Mayer, “Transformations in French anti-Semit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1-1(2007), pp. 58-60; 전현지, 「프랑스 이민자 집단 간 사회적 배제: 무슬림과 유대인 간 불균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5), 93쪽.

프랑스령 알제리의 '새로운 반유대주의'와 유대인-무슬림 관계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졸업생, ehdrjsdml@naver.com

주제어(Key words):

알제리 유대인(Algerian Jews), 프랑스령 알제리(French Algeria), 식민주의(Colonialism),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알제리 전쟁 (Algerian War).

(투고일: 2020.10.16, 심사일: 2020.11.10, 게재확정일: 2020.11.11)

<국문초록>

프랑스령 알제리의 ‘새로운 반유대주의’와 유대인-무슬림
관계

음 동 건

본고는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 변화를 무슬림 이웃으로부터의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알제리 유대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무슬림은 원주민 지위에 묶인 채 차별을 견뎌야 했던 반면, 유대인은 1870년 크레미외 법령(Décret Crémieux)을 통해 일괄적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뒤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이러한 불균등은 두 집단 사이에 긴장 관계를 조성하며 ‘새로운 반유대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은 알제리 전쟁 초기 ‘모호한 중립’을 표방하며 프랑스 시민의 지위와 무슬림과의 오랜 이웃 관계를 동시에 지켜내려 했지만, 1956년부터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에즈 전쟁 이후 그러한 두려움이 현실화되면서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공존의 역사는 독립과 함께 막을 내렸다. 본고는 당대 알제리 유대인 언론 『앵포마시옹 쥐브(*Information juive*)』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알제리와 이웃국가들을 바라보는 프랑스령 알제리 유대인의 시선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반유대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현실화가 프랑스령 알제리의 유대인-무슬림 관계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Abstract>

Jewish-Muslim Relations and 'New Antisemitism' in
French Algeria

Eum Dong-gun

This study explains the changes in Jewish-Muslim relations in French Algeria, focusing on Algerian Jewish perceptions of 'new antisemitism' from their Muslim neighbors. In French Algeria, Muslims were forced to endure discrimination with their native status. In contrast, Jews gained French citizenship en masse through the Crémieux Decree in 1870 and formed their identity as French citizens. This imbalance created tensions between the two groups, setting a stage for the realization of 'new antisemitism'. In the early stages of the Algerian War, Jews in French Algeria claimed to be neutral ambiguously. They sought to maintain the status of French citizens and hold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Muslim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have expressed their concern about 'new antisemitism' since 1956. After the Suez War, such fear became a reality in French Algeria and the history of Jewish-Muslim coexistence in Algeria ended with its independenc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mporary Algerian Jewish press, *Information Juive*. By exploring how French Algerian Jews viewed Algeri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this study will confirm the impact of their fear and the realization of that fear on the changes in Jewish-Muslim relations in French Algeria.

참 고 문 헌

1. 사료

- Information Juive* 60, 1954.11.
Information Juive 61, 1954.12.
Information Juive 68, 1955.7.
Information Juive 74, 1956.2.
Information Juive 75, 1956.3.
Information Juive 77, 1956.5.
Information Juive 78, 1956.6.
Information Juive 80, 1956.8-9.
Information Juive 81, 1956.10.
Information Juive 82, 1956.11.
Information Juive 83, 1956.12.

2. 단행본

- 노서경, 『알제리전쟁 1954-1962』 (과주: 문학동네, 2017).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유진 로진, 이은정 옮김, 『아랍: 오스만 제국에서 아랍 혁명까지』 (서울: 까치, 2016).
Boum, Aomar & Stein, Sarah Abrevaya, *The Holocaust and North Afric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9).
Katz, Ethan B., *The Burdens of Brotherhood : Jews and Muslims from North Africa to Fra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Mandel, Maud S., *Muslims and Jews in France: History of a Conflic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McDougall, James, *A History of Algeria* (New York, NY: Cambridge

- University Press, 2017).
- Meddeb, Abdelwahab & Stora, Benjamin eds., *A History of Jewish-Muslim Relations: From the Origins to the Present Da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 Roberts, Sophie B., *Citizenship and Antisemitism in French Colonial Algeria, 1870-1962*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Schreier, Joshua, *Arabs of the Jewish Faith: The Civilizing Mission in Colonial Algeria*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3. 논문

- 김진영, 「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Homo Migrans』, 12(2015).
- 문종현, 「19세기 말 알제리 반유대주의와 시민권 - 식민지 보수주의」, 『서양사론』, 134(2017).
- 전현지, 「프랑스 이민자 집단 간 사회적 배제: 무슬림과 유대인 간 불균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5).
- Boum, Aomar, "Partners against Anti-Semitism: Muslims and Jews respond to Nazism in French North African colonies, 1936-1940",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19(2014).
- Choi, Sung, "Complex compatriots: Jews in post-Vichy French Algeria",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17(2012).
- Hammerman, Jessica, "The Heart of the Diaspora: Algerian Jews during the War for Independence, 1954-1962",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13).
- Jikeli, Günther, "Explaining the Discrepancy of Antisemitic Acts and Attitudes in 21st Century France", *Contemporary Jewry*, 37-2(2017).

- Mayer, Nonna, "Transformations in French anti-Semit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1-1(2007).
- Rouche, Keren, "Projecting Algerian Judaism, Formulating a Political Identity: Zionism in Algeria during the War of Independence (1954-1962)",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12(2007).
- Schreier, Joshua, "A Jewish Riot against Muslims: The Polemics of History in Late Colonial Algeri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8(2016).